

[트렌드 & 스타일]

“꼬마속녀도 멋내고 싶어요” 어린이 화장 열풍



키즈 코스메틱 (Kids Cosmetic)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릴적 엄마의 화장대에 놓여있는 립스틱을 몰래 빌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이기 보다는 가장 가까운 엄마의 모습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엄마처럼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진화하면 아예 나만의 화장품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최근 '열풍 신드롬'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초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립스틱이나 파우더, 아이샤도 등으로 화장을 하는 '키즈 코스메틱(Kids Cosmetic)'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시장규모 1조 5천억원

어린이들의 '멋'에 대한 욕구는 성인 못지 않다. 염색이나 파마, 귀뚫기 등은 멋내기 필수 조건. 정미나(10·서석초3)양은 "멋내기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예쁜 언니들처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른처럼 파우더나 아이샤도를 바르기도 한다.

화장품 업계는 현재 어린이 및 청소년 화장품 시장 규모를 약 1조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성인시장(5조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화장품 시장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어른, 특히 어린 딸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의 채숙희(46·광주 북구 신안동)씨는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약한 상품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살된 딸을 둔 김신희(42·광주 광산구 월곡동)씨는 "아무리 어린이용 화장품이라 해도 어린 피부에 화학성분이 해롭지 않을

까 걱정된다"면서도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립글로스나 매니큐어 등의 제품은 어린이 전용이라면 멋내기용으로 사용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해성분 함유된 화장품인지 확인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화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무조건 못하게 하면 오히려 성인용 화장품을 몰래 쓰거나, 제대로 된 클렌징을 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만들 수도 있다. 그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성훈 피부과의 김숙경(41) 실장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피부에 외부 물질이 닿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보면 피부에 유해 할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제대로 지우지 않은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피부의 신진대사를 방해해 성장기 어린이의 피부에 알레르기 및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화장품 구입시 어린이 피부에 해를 줄 수 있는 라놀린 유도체, D&C색소, 계면활성제 성분, 화학성분인 미네랄 오일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어린이 섹소 화장품 고르는 방법

학교 앞 문구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들에서 납이나 메탄올 등의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이들 화장품을 매일 바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지만 아직 민감한 어린이 피부에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아직 클렌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물에 쉽게 지워지는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용과 달리 화장의 '지속력'보다는 화장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화장할때 사용하는 도구도 유의해야 한다. 스프레이 형태의 경우 잘못 분사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샤도도 마찬가지. 립으로 바를 경우 아직 서투른 손놀림에 눈을 다칠 수도 있으므로 손으로 바르는 제품을 권한다.

/*광전정기자 ksj@kwangju.co.kr

올바른 어린이 화장법

수용성·식물성 제품 안전
엄마와 함께 구입
깨끗한 손으로 화장

어린이용 섹소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다. '아이코(EYEKO)'는 가수 마돈나의 딸이 쓰고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틴에이지' 섹소 화장품이다. 어른들에게도 인기있는 독특한 디자인과 달콤한 향이 특징. 립글로스가 2만원대로 어린이에겐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흠이다. '마크윈'과 '미스 폴리' 역시 어린이들 전용 섹소 화장품 브랜드다. '마크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 연구소의 시험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스 폴리' 역시 전 제품이 수용성으로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과했고 천연 과일향이 포함되어 있다. 인형브랜드인 '바비'를 모델로 한 (주)파라코의 '바비 코스메틱'은 국내 최초 어린이 섹소 화장품으로 월 매출액이 4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바비'를 생산하고 있는 마텔사(社)가 직접 파트너십을 제안했 정도로 (주)

파라코의 '바비 코스메틱'은 외국 브랜드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물을 풀러 사용하는 바디 클리너, 고체형 향수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독특한 아이템들이 인기다. 바비코스메틱의 이영민(37) 마케팅 부장은 "마스카라·파운데이션 등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제품은 만들지 않을뿐더러, 물에 쉽게 지워지는 매니큐어 등 전 제품이 수용성·식물성으로 안전하다"며

"화장품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화장품은 아닌 만큼 어린이 화장품 구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키즈화장품은 화장품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화장품은 엄마랑 같이 구입하며 ▲깨끗한 손으로 화장품을 바를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바른 어린이 화장법을 제시했다. /*광전정기자 ksj@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Hyundai Motor, KIA, and various agencies. Includes contact info for agents like Lee Sun-ik and Kang Gyeong-jeong.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Eulji, Yuseong, LC Tower, Hyundai, 21st Century, and Daedong. Lists property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